

# '답보상태' 여수 경도개발 속도 낼까

답보상태에 있는 여수시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돼 논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여수시는 3일 오후 2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주제로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감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경도 진입도로(연륙교)와 타워형 레지던스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간담회에는 경도개발 허가권자인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 여수시의회, 여수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언론인, 시민 등이 참여한다. 간담회는 유튜브 '여수이야기'를 통해 공개된다.

앞서 지난 2월 15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경도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여수시 올해 부담금 71억 78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도개발은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사업이다. 진지한 의견 교환을 통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서로의 입장을 좁혀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미래에셋그룹이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경도 일원 2.15km(62만평) 부지에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해상케이블카, 마리나, 상업시설 등 아시아 최고의 복합 해양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투자비 가운데 4000억원



여수시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감도.

<여수시 제공>

## 시, 내일 전남도·광양청·시의회·YKD·시민단체 등 간담회 경도 연륙교 건설·타워형 레지던스 토론...유튜브 생중계

상당은 기존 경도 골프장 매입과 보상비 등에 투입됐다.

미래에셋그룹은 2020년 6월 11일 경도개발 착공식에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경도개발에 따른 이익을 여수에 100%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도와 연결되는 연륙교의 위

지 문제로 경도 앞 국동 및 신월동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또 여수시의회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레지던스 사업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철탈 갖을 주장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깨비버스·추추버스' 타고 곡성 여행

곡성읍 순환형 투어버스

5일부터 시범 운행 후

내달 1일 정상 운영



'깨비버스'

곡성군의 대표 관광지를 투어하는 '깨비버스'와 '추추버스'가 5일부터 운영된다.

깨비버스는 곡성읍 순환형 투어버이며 눈길을 끄는 핑크빛과 귀여운 도깨비 캐릭터로 꾸며져 어린이의 시선을 잡는다.

깨비버스는 '기차마을-6070청춘공작소&낭만광장-감성충전길-갤러리107-곡성성당-기차마을전통시장-뚝방마켓-기차마을'을 1일 7회 순환한다. 최대 탑승 인원은 19명이다.

유럽형 트램을 형상화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추추버스는 섬진강변을 따라 주요 여행지를 순환하는 투어버스다. '기차마을-심정향 옥마을-가정역-압록상상스쿨-가정역-심정향 옥마을-기차마을'을 1일 4회 운행하며 최대 31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깨비버스와 추추버스는 한 달여동안 무료 시범

운행을 한 뒤 부족한 점을 개선해 4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탑승권 소지자는 당일 기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코스 내 모든 정류장에서 승하차 가능하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추추버스.

# 순천시, 정원전문가 심화과정 교육생 모집

시, 교육비 90% 지원

순천시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원 교육·실습 기회 제공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심화과정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이번 심화과정 교육은 정원식물 이해관리, 정원조성 방법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총 81시간(이론 28, 실습 53)으로 진행되며 3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3시간씩 운영한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3일부터 8일까지다.

교육과정은 이전 3개년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기초과정 교육 후 처음 운영되는 심화과정으로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을 수료한 사람 ▲산림원에조경 관련학과 졸업증명서가 있는 사람 ▲산림원에조경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 ▲산림원에조경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비는 85만원으로 교육생이 10만원을 부담하고 전라남도도와 순천시에서 75만원을 지원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순천만국가정원 홈페이지 (<https://schay.suncheon.go.kr>) 정원교육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송귀근 고흥군수 출판기념회 열어

송귀근(사진) 고흥군수가 지난 26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다시 비상' 출판기념회 저자 사인회를 개최했다.

송군수는 민선7기 군정을 이끌면서 느끼며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한데 엮은 내용을 담았다. '다시 비상'은 1, 2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1장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여정, 2장은 군정의 시책과 사업의 추진과정을 담았다.

송군수는 이 책에서 30여년의 행정경험을 살려 누구보다 고흥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각오와 고흥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마

음을 담았다.

또 고흥의 미래를 향한 우주개발의 꿈 '항공우주도시' 로서의 고흥이 나아가야 할 점들도 수록했다. 송군수는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고흥부군수,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광주시 행정부시장, 국가기록원장 등을 역임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별교 가서 주먹 자랑 하지마라"

보성군, 별교에 '의(義) 공원 조성...안규홍 의병장·나철 선생 등 조형물 설치

보성군이 '의향(義鄕)', '예향(藝鄕)', '다향(茶鄕)' 3보향의 고장 특성을 살려 별교읍에 '의(義)'를 주제로 한 별교선근공원을 조성해 군민들에 개방했다.

보성군은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발생한 자투리 유휴공간을 활용해 별교읍의 관문인 선근지구에 '의(義)'를 테마로 한 4000㎡ 규모의 도시립을 조성했다.

특히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의향'의 도시라는 지역 특색에 맞게 독립운동에 앞장선 흥암 나철 선생, 채동선 선생, 안규홍 의병장의 일대기를 조형 벽화로 만들어 별교의 의로움을 바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별교 가서 주먹 자랑 하지마라'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가 별교장에서 아낙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안규홍 의병장이 일본 순사를 한주먹으로 때려눕힌 사건에서 시작됐다면서 이후 일제에 항거해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보성 사람들의 용기와 패기를 보여준 일본의 두려움이 '별교 가서 주먹 자랑 하지 마라'는 표현으로 굳혀졌다고 군은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군은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답살이 의병장 안규홍 동상과 황금 주먹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안



보성군이 의(義)를 주제로 해 별교선근공원을 조성하고 3·1절을 맞아 주민들에 개방했다. 안규홍 의병장 동상(오른쪽)과 황금주먹동상. <보성군 제공>

규홍 포토존, 주먹 의자, 의향 의자 등 '의(義)'와 관련된 미술작품 12종 34점을 전시했다.

군은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예술 작가들을 지원하는 '2020년 정부지원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지를 선정하던 중 태백산맥 문화거리와 선근지구를 연결하는 관광객 동선에 별교를 알릴 수 있는 예술공간을 조성키로 하고 별교선근공원 조성 사업에 나

섰다. 별교선근공원은 별교를 상징하는 제석산 수석, 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 산책로도 갖췄다. 특히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별교읍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 선근공원이 밝은 별교의 첫인상을 만들고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하며 건강과 여가생활을 쟁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